

광주 '애물단지' 김치타운에 250억 쏟아붓고 전남 '빚덩이' F1 경주장에 유스호스텔 건립

수요·콘텐츠 고민 없이 추진
경쟁하듯 '적자 행정' 남발
인건비·운영비 부담 불보듯

광주시와 전남도가 기본 수요나 콘텐츠에 대한 고민 없이 기존에 성과를 내지 못한 시설로 꼽히고 있는 김치타운이나 F1 경주장에 재정을 우선 공급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운영 전략 없는 시설 공급은 결국 추후 인건비, 운영비도 감당 못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김치타운, F1 경주장 등에서 운영중인 현재 프로그램, 콘텐츠, 시설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보완·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는 광주김치타운과 맞닿은 남구 입암동(효천지구) 380번지 일원 2만 1317㎡(6450평)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2일 밝혔다. 구매 예정 가격은 약 250억원이다.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 심의를 마치고, 내년도 예산 반영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 땅을 사는 이유가 뭘지 설득력이 약하다"는 우려가 불거졌지만 광주시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해당 부지 매입 후 용도를 크게 2가지로 제시했다. 단기 활용 방안으로는 현 김치타운 주차장 부지로 쓰고, 오는 2024년부터 추가 매수 부지에 김치복합테마파크를 지어 이용객을 끌어 모으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예산 확보 방안도, 장



광주시 남구 입암동(효천지구)에 자리 잡은 광주김치타운 전경. 광주시는 김치타운 주차장과 크레인인 있는 아파트 건설 부지 사이 토지 2만 1317㎡(6450평)를 오는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250억 원을 투입해 구매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350억 원을 들여 2010년 개관한 광주김치타운 국내 유일 김치박물관 등 김치 종가 광주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평가받지만 김장철 한 때를 제외하고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기 계획(김치복합테마파크)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김장철만 반짝 사람이 찾는 '애물단지', '예산 낭비 전형'이라는 낙인이 찍힌 김치타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없어 자칫 애물단지가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충분한 고민 없이 추진되는 것은 전남도의 'F1 경주장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

국립난대수목원 완도 유치 청신호 ▶2면

지하철공사 시작 불법주정차 골머리 ▶6면

손흥민 발롱도르 후보 30인 올랐다 ▶20면

다.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면서 중복·과잉 투자에 대한 고민 없이 수익성 확보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는 F1 경주장을 비롯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 방향에 걸맞은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주력하는 대신, 전남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설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남도의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계획'은 F1경주장에 청소년수련원 또는 유스호스텔을 건립해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방안이 담겼다. 전남지역 청소년수련시설과 유스호스텔만 20곳이 넘고 전남도 스스로 추가 예산을 투입해 청소년수련시설을 만들어도 적자를 피할 수 없다는 내부

운영·수입 분석까지 나왔지만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애초 광주·전남을 비롯한 호남권 학생들이 염두에 두고 조성된 400여명대 직업체험관(순천)과 비슷한 진로진학체험센터가 수십곳임에도 굳이 18억원을 들여 경주장에 직업체험관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인근 삼호지구·구성지구로 유입될 관광객들과 지역 천혜의 관광자원, 국내 유일의 F1 경주장이라는 차별성을 담아내기 위해 고민한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한 땀질식 사업 추진이라는 비판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제4회 동주문학상에 정현우 시인

수상작 '슬픔을 들기엔 ...'
11월 30일 조계사에서 시상식



인의악기상집' 등 앨범을 발매했으며 올해 개봉한 영화 '나의 노래는 멀리 멀리' OST 앨범에 참여하기도 했다. 현재 정 시인은 KBS 라디오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4회 동주문학상에 정현우(사진)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슬픔을 들기엔 슬픔이 아니듯이' 외 4편이며 상금은 1000만원. 〈관련기사 17면〉

올해부터 운동주서시문학상에서 동주문학상으로 이름을 바꿔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430명이 시집 응모를 했다. 이 가운데 13명의 원고가 예심을 통과했으며 5편의 후보작품이 최종본심에 올랐다.

최종본심을 맡은 이경림·나희덕 시인과 유성호 평론가는 "만만치 않은 음악적 자의식과 함께 서정적인 정감의 언어를 끌어내는 힘도 최대치로 느껴졌으며, 고요하고 침착한 심상을 갈무리해가는 능력은 여러 모로 귀 기울일 만한 것이었다"고 평했다.

이번 동주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정현우(34) 시인은 경기도 평택 출생으로 경희대 국문과와 동대학원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201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돼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음유시인으로도 알려진 정 시인은 '시

오, OBS 라디오 등에서 구성작가로 활동 중이다.

한편,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동주해외작가상은 미주 한국문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완도 출신 정국희 시인에게 돌아갔다. 정 시인은 2008년 미주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2013년 해외동포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수상작은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땅을 거처로 삼았다' 외 4편이며 상금은 300만원이다.

또한 동주해외작가특별상에는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장(1989~1992년)을 역임했으며 현재 미주문협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진 시인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5시 서울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공수처 설치법안 빨리 처리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이라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중합전형 전면 실행을 엄정히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정시비중 상황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22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조국 사태'를 계기로 공정 사회를 열망하는 국민 목소리를 수용해 집권 후반기에는 검찰개혁 등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한 공정을 추구한다는 국정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국민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뀌고 사회 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을 언급하며 "국회도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을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으로,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가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촉촉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촉촉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 설화수 플레그리스토퍼 및 전극 배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레그리스토퍼: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